

신숙주와 훈민정음

이돈주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머리

문화관광부가 한글 반포 556돌에 맞추어 올해(2002) 10월의 문화 인물로 신숙주(申叔舟)를 선정함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필자에게 맡긴 글의 제목이 「신숙주와 훈민정음」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해례본:1446)의 정인지 서문에 의하면 “계해년(음 1443) 겨울에 우리 전하(세종대왕)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히 예의(例義)를 지어 보이시고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름 지으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새 문자에 대해 자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왕명에 따라 저술한 이 책의 서문에 당시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곧 예조판서로서 주관자라 할 수 있는 정인지(1396~1478)를 비롯하여 집현전 응교 최항(1409~1474), 부교리 박팽년(1417~1456), 신숙주(1417~1475), 수찬 성삼문(1418~1456), 돈녕부 주부 강희안(1418~1465), 행집현전 부수찬 이개(1417~1456), 이선로(?~1453) 등 8인이다. 신숙주는 이 중의 한 인물인데 훈민정음과¹⁾ 관련하여 유독 이 분만을 들추는 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후술할 내용에서 위

주제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정인지의 말대로 세종대왕(1419~1450 재위)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베푸신 정치 업적이 모든 왕보다 뛰어나셨지만²⁾ 어문 정책의 성과에만 한정한다면 (1) 한글의 창제와 『훈정』(1446)의 간행, (2) 당시의 조선 한자음을 중국 운서에³⁾ 준거하여 규범음으로 개신한 『동국정운』(1448: 이하 『동운』으로 약칭함)의 간행, (3) 중국어 학습을 위해 한글로써 중국의 표준 자음을 표기[諺譯]할 목적으로 편찬에 착수한 『홍무정운역훈』(1445~1455: 이하 『역훈』으로 약칭함)과 『사성통고』의⁴⁾ 간행 (4) 인근 여러 민족어의 학습을 위한 4학(한·몽·여진·왜학)의 장려 등을 들 수 있다.⁵⁾ 이 네 가지 사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이 우선 어리석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쉽게 해 주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특히 2), 3)을 해결하기 위해 표음 문자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글은 순수한 우리말 표기, 개정할 조선 한자음의 완전한 표기, 외국 어음의 정확한 표기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어야 할 문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한글의 창제와 더불어 위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실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숙주는⁶⁾

-
- 1)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은 두 가지를 칭한다. 하나는 세종 대왕(1397~1450)이 창제한 우리 고유 문자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신제 문자에 대하여 제자의 원리·근거와 운용법 등을 해설한 책(국보 70호)의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한글」로, 후자를 『훈정』으로 약칭한다.
 - 2) “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 超越百王” 『훈정』 서문.
 - 3) 『동운』을 편찬할 때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는 元나라 때 나온 『고금운회거요』(1297)이었다.
 - 4)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최세진의 『사성통해』(1517) 서문에 의하면 세종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한어(漢語)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1991:2) 참조. 정광(2002:8)에 따르면 고려 시대 사역원에서는 주로 한어와 몽고어를 교육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일본어의 교육이 추가되었고, 조선조의 제도가 완성된 세조조에는 여진어의 교육까지 설치되어 4학이 완비되었다고 한다.

위의 세 가지 대업에 모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2)와 (3)에 주무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2. 음운학에 밝은 세종과 신숙주

한글 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중국 학술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유일한 동양 언어학의 한 분야인 중국 음운학이요,⁷⁾ 또 하나는 철학적 이론의 배경이 된 송대의 성리학이다. 우선 『훈정』의 내용만 보아도 이 두 가지 학술적 이론을 섭렵하지 않고는 가위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종은 물론 신숙주를 비롯한 당시 학자들이 만약 음운학의 이해가 없었더라면 과연 한글과 같은 정연한 체계의 문자가 창제될 수 있었을까? 의심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 세종이 음운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실은 도처에서 감지, 확인된다. 신숙주가 『역훈』 서문에서⁸⁾ “우리 세종 장헌대왕께서는 (음)운학에 뜻을 두시어 깊이 연구하시고 훈민정음 약간 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가 전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⁹⁾ 한 말이나, 또는 1444년 2월에 최만리 등이 올린 「언문창제 반대 상소문」에 대하여 세종이 일일이 반박한 말 가운데

6) 신숙주는 태종 17년~성종 6년(1417~1475) 때의 학자·정치가. 자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희현당(希賢堂),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공조참판 장(樺)의 아들이다. 세종 21년(1439)에 친시 문과에 급제, 1441년 집현전 부수찬이 되었다. 세종의 명을 받들어 성삼문과 함께 당시 요동에 귀양와 있던 중국 한림학사 황찬(黃瓚)을 10여 차례나 방문, 중국 음운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 『훈정』의 찬술에 이바지하고 특히 『동운』과 『역훈』의 편찬에 주무자로서 공이 높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타인의 논고로 미룬다.

7) 중국 음운학은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를 두루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대개 성운학(聲韻學) 또는 운학(韻學)이라고도 일컫지만,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운학’으로 칭하고자 한다.

8) 『역훈』 서문은 『보한재집』(권 15: 23-25)에 실려 있다.

9)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研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또 그대가 운서를 아는가?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는가? 만일 내가 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장차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¹⁰⁾라고 당당하게 힐문한 말에서도 세종의 음운학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그러면 어찌하여 세종은 한자음 또는 운서에 관심이 깊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의 언어 사상의 일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신숙주가 『동운』 서에서 대변하고 있다. 즉,

“문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성인의 도가 서적에 기록되지 못하고 천지에 발 붙이고 있었으나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성인의 도가 여러 서책에 실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인의 도를 구하려면 먼저 (성인이 쓴) 글의 뜻(文義)을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잘 알려면 (문자의) 성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운이란 도를 배우는 시초이다(……聲韻乃學道之權輿也).”

이 말은 곧 「聲韻→文義→聖人の道」의 순서가 된다. 즉, 세종은 중국의 한자가 혹은 자획이 와전되고, 혹은 성운과 사성이 변하여 가르치는 선생도 왕왕 옳은 음을 모르고 사사로이 음을 바꾸어 자제를 가르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져서 장치는 구제할 수 없는 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성운을 알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결국 음운학이야말로 공맹(孔孟)의 이상인 성인의 도를 배우기 위한 단초적 수단이기 때문이다.¹¹⁾ 이 사실은 역시 신숙주가 『동운』 서에서 “우리 주상 전

10) 『세종실록』(권 103). 이것은 세종이 우리의 개신 한자음을 보이기 위해 『東韻』을 편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말이다.

11) 한자는 저마다 자형·자음·자의의 3요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자음은 자형과 자의를 구동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은 중국 고래로 강조되어 온 사실이다. 후한 때 허신이 저술한 『설문해자』(100 완성)에는 9,357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형성자의 수가 7,697자로서 80%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한자에서 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청대에 고염무(1613~1682)도 「答李子德書」에서 “구경을

하께서는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겨 우문을 흥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없다. …… 속음을 정음으로 환원하고 구습을 바로잡도록 혁신하셨다.”라고 지적인 대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물론 『동운』 편찬의 의도를 강변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과업은 중국 음운학에 대한 조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동운』 서의 다음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을 알아야 음을 알고, 음을 살펴야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펴야 정사를 알게 된다(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이 말을 한글과 관련지으면 「한글→審聲→知音→知樂→知政」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의 창제는 정치의 도에까지 이어진 것임을 간파할 수 있다. 『동운』의 서문은 비록 신숙주가 집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는 작성자뿐 아니라 세종의 언어·문자관이 함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숙주 역시 음운학에 조예가 깊었음은 뒤에서 차츰 밝혀질 것이다.

3. 신숙주의 조선 한자음에 대한 판단

중국에서는 특히 7세기를 전후하여 음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음운서가 봉출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운서는 『절운』(601)이다. 그 후로 당(唐)대에는 『당운』(751)이, 송(宋)대에는 『광운』

읽으려면 모름지기 먼저 글자의 뜻을 살펴야 되고, 글자를 고찰하려면 먼저 음을 알아야 한다(讀九經 必自考文始 考文自知音始).”라고 하고, 또 단옥재(1735~1815)도 「광아소증」 서에서 “경서를 살펴려면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음을 아는 것보다 간절한 것이 없다(治經莫重於得義 得義莫切於得音).”라고 하였다.

(1008)이 간행되었다. 이를 이른바 「절운계 운서」라고 한다. 그 이후로도 왕조에 따라 대표적인 운서가 편찬되었으니 원(元)대에는 유연의 『임자신간에 부운략』(1252)과 웅충의 『고금운회거요』(1297)가, 명(明)대에는 『홍무정운』(1375)이 간행되었다. 또 송대에는 등운학(等韻學)이 성하여 『절운지장도』(1176~1203 이전)와¹²⁾ 같은 등운서가 출현하였다. 여기에서는 한자음의 성모가 발음되는 위치에 따라 7음을 분류한 다음 36자모를 선정하고 각 성모(聲母)의 변별적 자질인 청탁의¹³⁾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운모(韻母)에 대해서는 먼저 사성을 구분한 다음 운두의¹⁴⁾ 종류와 유무에 따라 개구음[-rounded]과 합구음[+rounded]으로 양분하고 또 운두와 주모음(핵모음)의 성질에 따라 1등운~4등운을 구별하여 각 한자음의 변별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등운도(일종의 sound table)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신숙주가 이상의 운서와 등운도를 비롯하여 중국 음운학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었던 증거를 여기에서 문증으로 다 제시할 지면이 없지만 그가 집필한 『동운』서와 『역훈』서는 물론 최세진의 『사성통해』(1517)에 수록된 『사성통고』 범례 등을 정독하여 보면 곧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 당시에 우리 한자음의 실상은 어떠하였던가. 신숙주는 『동운』서문에서 당시에 전승된 조선 한자음의 특징을 빚어낸 변인을 매우 극명하게 지적하였다. 즉, 어리석은 스승이나 선비들이 (1) 반절법을 모르고 (2) 자모와 운모의 분류 방식도 몰라서 (3) 혹은 자형이 상사하여 한 음으로 하고

12) 이 운도는 중국에서는 『고금운회거요』나 『홍무정운』 등의 운서 편찬에는 물론 한글의 창제와 『훈정』, 『동운』의 편찬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책이다. 예컨대 「아·설·순·치·후·반설·반치음, 등 7음의 순서라든가,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과 같은 청탁(淸濁)의 용어가 그대로 채택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청탁이란 성모의 음운론적 변별자질(phonological distinctive features)에 해당한다. 전청[-voice, -aspirated], 차청[-voice, +asp.], 전탁[+voice, ±asp.], 불청불탁[+voice, +sonorant] 등.

14) 운두를 혹은 개음·개모라고도 칭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반모음(semi-vowel)과 같다.

(4) 혹은 선왕의 휘자를 피하여 다른 음을 빌리며 (5) 혹은 두 글자를 합하여 하나로 하고 (6) 혹은 한 음을 둘로 나누며 (7) 혹은 다른 글자를 빌리고 (8) 혹은 점이나 획을 가감하며 (9) 혹은 중국 한음에 기대기도 하며 (10) 혹은 우리말 음을 따라서 (11) 자모와 철음, 청탁과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

이상 11가지 변인 중 특히 (11)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래 중국 한음에서 [k'-](무성유기음)로 발음되던 자음이 우리 한자음에서는 대부분 [k-](무성무기음)로 발음되고 있다(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¹⁵⁾
- ② 원래 중국 한음에서 [k'-]로 발음되던 자음이 더러는 [h-]음으로 발음되는 것도 있다(溪母之字或入於曉母).¹⁶⁾
- ③ 우리말에서는 [k'-]음이 많이 쓰이는데 조선한자음에는 오직 ‘ㄱ’(꺠)자가 있을 뿐이다(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夫之一音而已).
- ④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이 없다.
- ⑤ 순중음과 순경음의 구별이 없다.
- ⑥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없다(如舌頭舌上 脣重脣輕 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 ⑦ 우리 한자음에는 전탁음이 없다(於字音無濁聲).

이상의 사항들은 세종 당시까지 우리 나라의 전래 한자음이 지닌 성모의 특징을 중국 운서음과 비교 귀납한 것으로 특히 ④~⑥은 한·중어 간에 존재한 음소 목록의 차이를 명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성모에 관한 한 전래 조선한자음 중에 ①~③항과 ⑦항에 해당하는 자음들이 크게 개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¹⁷⁾

15) 이런 현상을 「字母之變」이라 하였다.

16) 이런 현상을 「七音之變」이라 하였다.

17) 참고로 『훈몽자회』(1527)의 한자음과 『동운』 한자음의 차이를 예시해 보면 ① 杭(:강)→·강, 乞(:걸)→·꺠 ② 伧(:항)→·강, 簾(:협)→·꺠 ⑦ 毬(구)→꺠,

그리하여 ④~⑥은 당시의 국어 음운 체계에서도 비변별적(non-distinctive)이었으므로¹⁸⁾ 『동운』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중고한음의 36자모를 통합하여 23개 자모를 책정하였던 것이다.¹⁹⁾

<표1> 중고한음의 36자모(좌)와 『동운』의 23자모(우)

음명 / 清濁	全 清	次 清	全 濁	不清不濁
牙 音	見 君 ㄱ	溪 快 ㅋ	群 蚪 ㄲ	疑 業 ㅇ
舌 音	端 斗 ㄷ 知	透 吞 ㅌ 徹	定 覃 ㄸ 澄	泥 那 ㄴ 娘
脣 音	幫 驚 ㅍ 非	滂 漂 ㅍ 敷	並 步 ㅍ 奉	明 彌 ㅁ 微
齒 音	精 卽 ㅈ 照 心 戌 ㅊ 審	清 侵 ㅊ 穿	從 慈 ㅈ 牀 邪 ㅊ 邪 邪 ㅈ 禪	
喉 音	影 悒 ㅇ	曉 虛 ㅇ	匣 洪 ㅎ	喻 欲 ㅇ
半舌音				來 閏 ㄹ
半齒音				日 穰 ㄷ

段(단)→·뎡, 盤(반)→뽕, 魴(방)→뽕, 席(석)→·썩, 籍(·적)→·썩 등과 같다.

18) 이 점에 대하여 신숙주는 『동운』 서에서 “설두·설상음, 순중·순경음, 치두·정치음 같은 것은 우리나라 한자음에서는 구별할 수 없으니 역시 마땅히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36자모에 엄밀히 필요가 있겠는가?(……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라고 언명하였다. 이 대목에서도 그가 개별 언어의 음운에 얼마나 밝았는가를 알게 한다.

19) 이 23자모에서 전탁음자(각자병서: ㄱ ㄷ ㅍ ㅈ ㅊ ㅎ)를 뺀 나머지가 한글 초성 17자이다.

4. 신숙주의 중국어음 표기

4.1. 요동의 왕래와 중국어 음운 질정

한글 창제와 더불어 시작한 『동운』의 편찬 사업은 세종 29년(1447)에 완료되어 그 이듬해에 간행되었지만 세종은 조선 한자음뿐 아니라 명나라와의 교린·외교를 원만히 수행할 뜻에서 중국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한글로써 중국어음을 표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 텍스트로 선정한 운서가 곧 『홍무정운』(홍무 8년, 1375)이었다. 이 책은 명 태조가 국가의 언어적 통일을 꾀할 목적으로 명나라의 표준음을 제정코자 송림 등에게 명하여 칙찬한 운서이다.²⁰⁾ 그런데 중국 한자음의 표준(규범)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은 바로 명 태조의 흠정 운서인 이 책을 최고의 권위서로 인정하여 이 운서의 자음을 신숙주·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한글로 주음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숙주 등은 『홍무정운』의 반절을 귀납하여 31자모를 밝혀내고 운모음을 살피서 「평·상·거·입성」의 4성을 포함한 76운 체계의 소운자(小韻字)를 한글로 표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오게 된 책이 『역훈』이다.²¹⁾

신숙주는 이 역훈 사업에 주무자 역할을 하였는데, 그가 집필한 『역훈』의

20) 명 태조는 즉위 원년(1368)에 금릉(金陵)을 남경이라 하고, 개봉(開封)을 북경이라 하여 양경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의 방언차는 너무도 심하여 통일된 체계를 세우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정운』의 편찬을 강행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남북의 양대 방언을 절충한 일종의 혼합식 음계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어느 쪽의 현실음과도 괴리가 있는 운서이어서 명대에도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청대의 막유지는 『운학원류』에서 『홍무정운』은 학술과는 무관하게 완전히 정치적 필요에서 간행된 운서라고 혹평한 바도 있다. 이돈주(1995:172) 참조.

21) 이 사업은 세종 27년(1445)부터 착수하였으나 『동운』과는 달리 중국어음이었으므로 정확한 음을 알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교정을 거듭한 끝에 단종 3년(1455)에야 16권 8책으로 간행되었다.

서문(1445. 음 4월 16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열정과 고난의 역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이미 다르고 와전이 심하여 이에 (세종이) 신들에게 명하기를 ‘중국 선생이나 학사들에게 물어보아 바로잡도록 하라’ 하시기에 왕래가 7, 8회에²²⁾ 이르렀고 물어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 중국의 수도인 연경은 만국이 회동하는 곳으로서, 먼 길을 오갈 때에 일찍이 교섭하여 밝혀 보려고 한 사람이 적지 않고, 변방이나 이역의 사신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리하여 정속과 이동의 변화를 다 밝히려고 하였다.”

위 서문의 내용은 ① 『세종실록』(권 107. 1445년 정월조)에 “신숙주, 성삼문, 손수산 3인을 요동에 보내 운서를 질문하게 했다”라는 기사²³⁾나, ② 강희맹(1424~1483)이 찬한 「문충공행장」에서 우리 나라 어음은 와전되고 정운(正韻)이 실전하였는데 을축년(1445) 봄에 때마침 죄를 지어 요동에 유배된 한림학사 황찬(黃贊)을 찾아가 음운을 질문하고, 한글로 중국어음을 옮기는데, 물음에 따라 민첩하게 해석하며 추호도 틀림이 없으므로 황찬이 매우 신기하게 여겼는바²⁴⁾, 요동에 왕래함이 무릇 13번이었다는 기록²⁵⁾, ③ 『세종실록』(권 127. 1450년 윤정월조)에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과 사마순(司馬恂)의 내조를 맞아 성삼문과 신숙주가 정음을 질정하고 『홍무정운』의

22) 『보한재집』에 실린 여러 글에는 13회로 나타난다.

23)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 成均主簿成三問 行司勇孫壽山 于遼東質問韻書.”

24) 신숙주가 한어·왜어·몽고어·여진어 등에 모두 통하였다는 기사는 강희맹의 「문충공행장」에도 실려 있다.

25) “本國語音註僞 正韻失傳 時適翰林學士黃贊 以罪配遼東 乙丑春 命公隨入朝使臣到遼東 見贊質問音韻 公以諺字翻華音 隨問輒解 不差毫釐 贊大奇之 自是往還遼東 凡十三度.” 『보한재집』 부록 10. 이 사실은 신숙주의 문인인 이조참판 이파(李坡)가 찬한 「묘지」(『보한재집』 부록 22)와 이승소(李承召)가 찬한 「비명」(『보한재집』 부록 29)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강론을 받았다는 기사와도²⁶⁾ 부합된다.

이렇게 요동을 오가며 황찬 등에게 음운을 질정하였던 까닭은 당시 외국 어로서의 중국어음을 한글로 표음하는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기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숙주가 『역훈』 서문에서

“또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유학자이면 정확한 것을 취하여 무릇 원고를 10여 차례나 반복하여 애써 고쳐 마침내 8년의 긴 세월 만에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²⁷⁾

라고 토로한 말도 그 어려웠던 과정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각고면려한 신숙주의 업적은 한글이 다만 우리말의 표기뿐만 아니라 조선 한자음과 중국 어음까지를 동시에 표음해 줌으로써 식자들이 까다로운 반절법이나 등운도 등을 살피지 않고도 직접 정확한 자음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표음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종횡으로 십분 발휘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뜻이다.

강희맹이 위의 「문충공행장」에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나라의 음운이 중국어와 비록 다를지언정 아·설·순·치·후음, 청탁·고하는 미상불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 갖추어 있어야 되고,²⁸⁾ 열국은 다 자국 어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가 있어 제 언어를 적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글자가 없다고 하시어 대왕께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 궁중 안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뽑아 언문 관계 서적을 편찬할 때 공(신

26) “命直集賢殿成三問 應教申叔舟 奉禮郎孫壽山 問韻書于使臣 三問等因館伴以見……何曰此二者 欲從大人學正音 願大人教之 三問叔舟將洪武正韻講論良久”

27) “且天子之使 至國而儒者 則又取正焉 凡曆十餘載 辛勤反復 竟八載之久 而向之正罔缺者 似益無疑.”

28) 우리말도 조음 위치에 따른 성모의 종류와 전청·차청 등 변별적 자질은 물론 운모에 나타난 사성의 요소들이 중국어와 같다는 뜻이다.

숙주)이 실지로 대왕의 속마음을 받들었다(公實承 睿裁).”²⁹⁾

라고 찬사를 적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숙주는 특히 『동운』과 『역훈』 편찬에 주무자 역할을 하였는데 그가 『역훈』 서에서 밝힌 대로 “세종께서는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이 통하지 않아 반드시 역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시고 무엇보다도 『홍무정운』을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요동을 13회나 왕복하고 원고를 열 번이나 고쳐 마침내 이 사업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4.2. 성모 체계의 확립

『홍무정운』의 범례 제1항에 보면 “모거정, 황공소의 설을 근거로 삼되 죽하지 못한 것은 보충하고, 죽하게 되었으면서도 바르지 못한 것은 중원이음으로 바로잡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체제는 모황의 『증수호주예부운략』을 따르고, 음은 기본적으로 『중원음운』(1324)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홍무정운』의 분운(分韻)과 성모의 양상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운서 내용과는 매우 특이한 사실들이 발견된다.³⁰⁾

어쨌든 『홍무정운』은 전통적인 『광운』의 206운과 달리 76운(평·상·거성 각 22운, 입성 10운)으로 통합한 것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타의 운서와 마찬가지로 성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신숙주는 『역훈』 서문에서 “7음은 36자모이지만 설상음 4모와 순경음의 차칭 1모는 세상에 쓰이지(즉 발음되지) 않음이 이미 오래고, 또 선포가 이미 바뀐 것이 있으니 역지로 (36)자모를 존속시켜 옛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

29) 『보한재집』 부록 10. 이러한 찬사는 이파가 쓴 신숙주의 「묘지」와 이승소가 쓴 「비명」에도 적혀 있다.

30) 이에 대해서는 이돈주(1995: 166~172)로 미룬다.

하여 31개 성모를 추출한 것인데, 그 결과는 『사성통해』 서에 실린 「홍무정운 삼십일자모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¹⁾ 이 31자모란 위에서 제시한 36자모에서 설상음에 속한 「知[t-]·澈[tʰ-]·澄[d-]·娘[n-]」의 4성모와 순경음의 敷[f-]모를 뺀 수이다. 그 까닭은 당시 중국의 실제음에서 중고한어의 「知·徹·徵」모는 이미 정치음인 照[t-]·穿[tʰ-]·牀[dʒ-]모에, 娘[n-]모는 치두음인 泥[n-]모에, 敷[f-]모는 非[f-]모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훈』에서의 한글 주음은 31종의 성모가 쓰이게 되었는데 이를 예시하면 <표2>와 같다.

<표 2> 『역훈』의 31개 성모와 한글 표음

牙 音	見ㄱ 溪ㄱ 群ㄱ 疑ㅇ	舌 音	端ㄷ 透ㄷ 定ㄷ 泥ㄴ
脣重音	幫ㅁ 滂ㅍ 並ㅂ 明ㅁ	脣輕音	非ㅍ 奉ㅍ 微ㅁ
齒頭音	精ㅈ 淸ㅈ 從ㅈ 心ㅈ 邪ㅈ	正齒音	照ㅈ 穿ㅈ 牀ㅈ 審ㅈ 禪ㅈ
喉 音	影ㅇ 曉ㅇ 匣ㅇ 喻ㅇ	半舌音	來ㄴ 半齒音 日ㄷ

위 표에서 주목할 사실은 우리말이나 『동운』의 표기자와는 달리 중국어의 치두음과 정치음을 구별 표음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한글 글자(ㅁ:ㅍ 등)를 새로 창안하였다는 점이다. 두 성모의 차이점과 발음 방법에 대해서는 『훈정』(예의본)의 국역본에도 예시되어 있지만 『역훈』에서 이 글자가 마련된 이래 『사성통해』나 『노걸대』·『박통사』 등 언해본의 중국어음 표시에도 그대로 이용되었음은 잘 아는 일이다. 여기에서도 신숙주 등의 한글에 대한 공을 간과할 수 없다.

31) 중국에서는 유문금(劉文錦), 「홍무정운성류고」, 『역사어언연구소집간』(국립중앙연구원) 3-2(1931:237~249)에서 『홍무정운』의 반절을 계련하여 31개 성류를 귀납하였는데, 이미 15세기에 신숙주가 역시 31자모를 설정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4.3. 입성자음의 처리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역훈』에서 입성자음을 처리한 태도이다. 주지한 대로 중국 북방어에서 입성 운미[-k, -t, -p]는 이미 주덕청의 『중원음운』(1324) 시기에도 소멸되어 평·상·거성으로 파입된 상태였다. 그런데 『홍무정운』에는 이러한 음운 변화가 전연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는 당시의 북방음을 고려한 나머지 입성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속음을 표시하는 창의성을 보여 주었다.

① 影·혹 屋. 烏谷切. 俗音·홍. 韻內諸字終聲同. (권 14)

② 照·진 質. 職日切. 俗音·징. 韻內諸字終聲同. (권 14)

③ 匣·햐 合. 胡閣切. 俗音·햏. 韻中諸字終聲同. (권 16)

④ 喻·약 藥. 弋灼切. 俗音·양. 韻內諸字終聲同. (권 15)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④의 「藥」의 입성 운미는 ‘ㅃ’로 표시하고, 기타의 입성 운미[-k -t, -p]는 모두 한글의 ‘ㅎ’ 종성으로 대응한 점이 주목된다. ‘ㅎ’의 음가는 성문파열음[?]에 해당한다. 그러면 과연 당시에 입성자들이 -k>?, -t>?, -p>?의 단계처럼 발음되었는지, 아니면 실제의 독음에서는 소실되었지만 입성 운미의 흔적을 ‘ㅎ’로 대응하였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성통고』의 범례를 존중하거나,³²⁾ 혹은 현재 일부 중국어 방언에도 입성자음이 [?]로 발음되고 있는 점을³³⁾ 고려하면 전자의 개연성을 부정하기

32) 신숙주가 『사성통고』 서에서 “또 지금의 속음은 비록 종성을 쓰지 않더라도 평·상·거성의 느린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모든 운의 속음 종성은 후음의 전청인 「ㅎ」을 쓰고, 「藥」운의 종성은 순경음의 전청인 「ㅃ」을 써서 이를 구별하였다.”는 말에서 그의 관찰로는 당시에 이전의 입성음이 본래의 음성운과는 발음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듯하다.

33) 예컨대 소주(蘇州) 방언의 입성자 운모는 보기처럼 발음된다. <보기> 谷綠[-oʔ], 欲[-ioʔ]; 質衛[-əʔ], 髮[-aʔ]; 納[-əʔ], 業[-iəʔ]. 王力(1985: 556-557) 참조.

어려우므로 필자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이런 판단이 옳다면 신숙주를 비롯한 『역훈』 편찬자들의 관찰은 가위 정확하였고, 또 음운론적 관점에서도 그 표음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세상에는 제아무리 훌륭한 발명품이라도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응용할 줄 모르면 가치를 발휘하지 못 하는 법이다. 정인지가 『훈정』 서문에서 언급한 대로 한글 28자는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고 요긴하며 정밀히 통하는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고도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으며, 바람 소리(風聲), 학의 울음(鶴唳), 닭의 울음(雞鳴), 개 짖는(狗吠) 소리까지도 못 적을 것이 없다(皆可得而書矣)고 하였듯이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 문자사에 길이 남을 문자임에 틀림없다.³⁴⁾ 그렇지만 한글은 우연히 창제된 것이 아니고 세종과 같은 호학군주와 그를 따른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특히 세종과 신숙주를 비롯한 학자들이 중국 음운학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신숙주는 『용비어천가』의 저술에도 참여하여 우리말 표기에 공헌하였음은 물론 『훈정』의 편찬에서는 제자의 음운학적 이론을 뒷받침했으리라고 믿는다. 게다가 『동운』과 『역훈』이 완성되기까지 주무자 역할을 맡은 그는 한글이 표음 문자로서 지닌 우수성을 십분 발휘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런 점에서도

34) G. Sampson(1985:120)은 한글을 “자질적 체계”(A featural system)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찬사를 들어 놓았다. “...in the 15c a Korean created for the use of his countrymen a wholly original and quite remarkable phonographic script, nowadays called *Hangŭl*, which has been described a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Reischauer 1960, p. 435), or more simply as ‘the world’s best alphabet’(Vos 1964, p. 31).”

신숙주와 훈민정음은 떼어 수 없는 관계가 있으므로 그의 업적을 재조명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홍무정운』.
 『보한재집』(1988). [한국문집총간]본 10. 민족문화추진회.
 강신항(1991).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김무림(1999). 『홍무정운역훈연구』. 월인.
 박병채(1983).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신상순·이돈주·이환목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유창균(1979).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탑출판사.
 이송녕(1981). 『세종대왕의 학문과 사상』. 아세아문화사.
 정 광(2002). 『역학서연구』. 제이앤씨.
 王 力(1985). 『漢語語音史』. 중국사회과학출판.
 Geoffrey Sampson(1985). *Writing System* London.